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14년 3월 17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3장

담당: 홍보실 김성연 연구원

전화: 02-3701-7349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

21-22 일, 암스테르담 '원자력지식서밋' 공동개최

- 갈루치, 세이모어 등 핵안보 전문가 200여명 참석
- '핵테러 위협이 없는 세상' 논의

-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 www.asaninst.org)은 21(금)-22(토) 양일 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국제관계연구소(Clingendael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미국 핵분열성물질실무그룹(FMWG, Fissile Materials Working Group)과 핵안보정상회의 사전 부대행사인 '원자력지식서밋(Nuclear Knowledge Summit)'을 공동 개최한다.
- 개리 세이모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 로버트 갈루치 맥아더재단 회장,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 등 200여명의 세계적인 핵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핵안보"를 주제로 세계 핵안보체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 총 4개의 패널로 진행되는 '원자력지식서밋'에서는 핵안보체제 결집력의 향상, 핵안보 지역협력, 정보 공유 및 동료간 검토, 핵물질 및 방사선원의 안보 증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본 연구원 신창훈 글로벌거버넌스센터장은 핵안보전문가회의 및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5일에는 네덜란드 외무성 주최 세계 언론 브리핑에도 참여한다.

※ 'Nuclear Knowledge Summit'은 제 3차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열리는 세계 핵안보 전문가회의로서, 핵안보정상회의의 정치적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확대 보완하고, 전 세계 핵안보 민간 전문가들 간의 정보와 지식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정상회의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 1차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부대행사: NGO Summit

- 2차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부대행사: Nuclear Security Symposium

※ 동 연구원은 지난 2011년 "핵의 미래(Our Nuclear Future)"를 주제로 아산플래너를 개최한 이래 아산핵정책기술센터 설립, 아산핵포럼 개최, 세계핵안보거버넌스전문가그룹(NSGEG) 결성 등 세계 핵/원자력 전문가 네트워크 및 핵문제에 관한 혁신적인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참고자료] '원자력 지식서밋' 일정표

참고 자료

'Nuclear Knowledge Summit'

시간	Program	비고
3.21(금)		
9:30	개회식	
9:45	기조연설 (1)	한승주 前 장관
10:15	휴식	
10:45	패널(1) : '핵안보체제 결집력의 향상'	게리 세이모어(좌장) 신창훈 연구위원 발표
12:15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 (NIS) :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에서 바라본 지식 서밋'	
13:00	오찬	
14:00	패널(2) : '핵안보에 대한 지역적 접근'	
15:30	휴식	
16:00	핵안보 맥락에서의 사이버 보안	
17:00	패널(3) : 정보 공유 및 동료간 검토(peer review)	
19:00	만찬	함재봉 이사장 겸 원장 만찬환영사
3. 22(토)		
9:30	기조연설 (2)	로버트 갈루치 회장
10:15	패널 (4) : 핵물질과 방사선원의 보안 증진	박지영 연구위원 발표
12:15	폐회	
12:45	오찬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급변하는 한반도, 동아시아, 지구촌 정세에 대응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 지향을 목표로 2008년 2월 설립되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에 역량을 집중, 한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 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3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 국제회의' 부문에는 국내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